

##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

- 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

김 건 희\*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단어, 품사, 문장성분’이라는 국어학의 중요한 문법 단위들에 대하여 그 관련성을 토대로 한 변별적인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단어에 대하여 기존 논의들이 ‘품사, 문장 성분’의 용어를 사용하여 ‘- 단어’로 분류하는 것을 비판하고 ‘단어’는 어떤 단위가 품사 분류의 재료가 되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가로 논의를 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단어’로 불렀던 것인가에 대한 쟁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던 ‘어미’를 중심으로 최근의 몇몇 논의처럼 ‘어미’도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둘째, 문장성분에 대하여 기존 논의들이 문장성분의 정의와 문장성분의 분류를 혼동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점은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문장성분의 일반적인 정의인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품사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정의는 다른 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단어, 품사, 문장성분, 정의, 분류기준, 품사통용, 기능, 문법적 관계  
Word, part of speech, sentence constituents, definition, classification criteria,  
*Pumsatongyong*, function, grammatical relation

장성분, 곧 서술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장성분들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품사의 분류 기준 ‘기능’은 문장성분의 ‘문법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며 이는 품사통용의 문제와 연관됨을 보였다. 곧 품사통용은 기본적으로 허 응(1975)에서 규정한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체언류에 국한되어 특정한 품사류는 여러 기능의 문장성분으로 나타난다는 정도로 그 논의를 축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품사 분류 기준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에 대한 재고찰을 하는 것이며 품사통용이 품사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성분의 문제임을 보이고자 함이다.

## 1. 서론

품사의 기본 재료는 ‘단어’로 20세기 전반에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품사(part of speech) 대신에 단어류를 의미하는 ‘word class’란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최근 논의인 최형용(2010), 한정환(2011)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품사(part of speech)가 ‘part of sentence’ 혹은 ‘part of phrase’의 오역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단어, 품사’를 연계시켜 정의하고 있다. 곧 최형용<sup>1)</sup>에서는 품사가 문장의 일부 가운데 단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품사에 대한 ‘parts of speech’에 품사를 나누기 위한 상한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word class’에는 그 하한선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품사(part of speech)는 라틴어의 ‘partes orationis’를 번역한 것으로 품사의 원래 의미는 ‘문장의 부분(parts of sentence)’을 말한다. ‘문장의 부분’이라고 할 때 ‘부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문장의 구성 성분(sentence constituents)’을 의미하며 이러한 품사의 원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현대 국어의 문법적 개념도 ‘문장성분’으로 볼

1) 최형용(2010), p. 48.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sup>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논의<sup>3)</sup>도 문장성분은 그 기본 단위가 단어나 어절이지만 어절들이 결합된 구, 절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품사(part of speech)의 원래 의미인 ‘parts of sentence’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품사와 단어를 연계시켰지만 본고는 단어,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성분이 연관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품사 ‘part of speech’의 어원과 관련하여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용어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분류적 관점에서 이들 세 문법적 단위의 변별성을 주장하는 본고의 핵심 논지와 모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의 어원에 대한 고찰은 기존 논의에서 ‘품사’와 연관시킨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성분’까지 연관시켜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상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그 분류 논의에 대한 재고찰을 하려는 본 논문의 단초가 되었다.

‘단어, 품사, 문장성분’을 다룬 기존 논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보였다. 첫째 논제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곧 ‘품사, 문장성분’과 관련된 문제를 ‘단어’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문장성분’과 관련된 문제를 ‘품사’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둘째 용어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단어’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품사, 문장성분’의 용어로 분류하기도 하고 ‘문장성분’과 관련된 용어를 ‘품사’의 용어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국어 문법에서 이들 세 부류 중 어느 한 단위를 폐기하거나 생성문법의 통사 범주(NP,

2) 품사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사를 onoma와 rhema로 이등분하였는데 이러한 onoma와 rhema는 명사와 동사가 아니라 주어와 술어였다. 그러나 이후 Thrax와 Donatus는 이러한 주어와 술어를 명사와 동사로 규정하여 명사, 동사를 비롯한 8개의 품사를 제시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송경안(2008), p. 10.; 이향천(2008), p. 165. 참조).

3) 송경안(2008), p. 9.)에서는 ‘parts of speech’가 두 가지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곧 ‘speech’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보다는 ‘sentence’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또한 문장의 부분(part)이라는 것이 낯말도 될 수 있고 구(phrase)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였다.

VP)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지 않는 이상<sup>4)</sup> 이러한 중복 및 혼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각 단위에 대하여 정의와 분류 기준이 혼동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개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규정한다기보다는 ‘단어, 품사, 문장성분’으로 이어지는 문법의 중요한 기본 대상들에 대해 관련성을 명확히 해서 그 관련성을 토대로 한 변별적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의 기본 재료가 되는 ‘단어’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 논의들에서 ‘-적 단어’, ‘- 단어’로 제시한 분류에 대해 비판하고 그동안 ‘단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던 ‘조사, 어미’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문장성분과 품사의 관련성을 토대로 기존 논의에서 문장성분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또한 품사의 분류 기준과 문장성분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품사통용에 대해서 논의하겠고 문장성분과 품사의 용어가 혼재된 내포절의 분류 용어에 대해서도 다루겠다. 4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겠다.

## 2. 단어의 분류

단어를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은 품사로 품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단어’란 무엇이며 어떤 단위가 ‘단어’가 될 수 있는지가 논

4) 생성 문법에서는 통사 범주(syntactic category)란 단위로 품사에 해당하는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와 문장성분에 해당하는 구 범주(phrasal category)를 모두 지칭한다. 나아가 생성 문법에서는 명사구(NP), 동사구(VP)도 핵만 다른 같은 구성성분이며 특히 몇몇 형식 의미론(Formal Semantics)의 논의에서는 명사, 형용사, 자동사를 집합을 표시하는 1항 술어로 보고 이들을 모두 <e, t>로 표시하여 이들 범주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본다(Baker(2003), pp. 1-23. 참조).

의되어 왔고 이는 당연한 절차로 생각된다. 물론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단어를 다룬 많은 국외 논의에서도 단어 정의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Jackson<sup>5)</sup>에서는 단어 정의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특히 널리 인정되고 있는 Bloomfield (1933)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곧 Bloomfield<sup>6)</sup>에서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단위’라는 정의로 형태소(morpheme)나 의존소(bound) 등 다른 언어 단위와 단어를 대조시키며 최초로 ‘단어’에 대한 형식적인(formal) 정의를 제안하였지만 이러한 관점의 ‘단어’는 관계어(and, by), 문법 형태소(-ing, -est)가 배제되는 한정된 수의 요소로 이루어진 어휘소(lexis)만을 의미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Aronoff<sup>7)</sup>에서도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어떤 정의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고 이 점을 학자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atamba<sup>8)</sup>에서는 ‘단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단어의 본질을 규명할 때 생기는 어려움은 ‘단어’라는 용어가 보통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로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장에서는 이러한 ‘단어’에 대해 기존 분류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동안 단어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던 ‘조사, 어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품사의 분류 기준과도 연관시켜 논의하겠다.

## 2.1. 기존 단어 분류에 대한 비판

‘단어’를 다룬 최근 논의인 한정환(2011)에서는 단어를 다양한 기준에

5) Jackson(2000), p. 48.

6) Bloomfield(1933), p. 178.

7) Aronoff(2005), p. 47.

8) Katamba(2006), p. 21.

서 고찰하고 있으며 단어 분류 논의가 엄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을 뒤섞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최선의 기준인 기능적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기능이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를 가장 잘 드러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정현<sup>9)</sup>에서 제시한 ‘기능적 단어’는 품사, 문장성분의 용어로 분류하여 <표 1>의 ‘기능적 단어’에는 품사나 문장성분의 단위가 뒤섞여 있다.

<표 1> 국어의 기능적 단어(한정현(2011), p. 223.)

기능적 단어		문장 속 기능
체언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임(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적 용법의 부사)
수식어	관형어	체언을 수식함
	부사어	용언, 부사, 절 드물게 체언을 수식함
관계어		문법 관계를 표시함(조사)
접속어		접속조사(구접속, 절접속), 인용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쓰임
용언		서술어(동사, 형용사)로 쓰임
운용어		서법, 양태, 부정, 시제, 상, 종결어미, 경어법으로 쓰임(선어말어미, 어말어미)
독립어		감탄사로 쓰임
성구소(XP 또는 X0)		관용구, 연어 등이 위의 기능적 단어로 쓰임

좀 더 살펴보면 진정한 단어로 본 ‘기능적 단어’에는 ‘체언’, ‘용언’과 같은 품사의 중분류 단위와 ‘수식어(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와 같은 문장성분 단위가 뒤섞여 있다. 이들 ‘기능적 단어’의 ‘문장 속 기능’도 ‘-

9) 한정현(2011), p. 223.

로 쓰임'(6개 단어)과 '-를 수식함'(2개 단어), '-를 표시함'(1개 단어)으로 세 부류로 나뉘지는데 '-로 쓰임'의 경우 하나만 살펴보아도 그 기능이 '문장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품사'(감탄사)로 되는 것과 '문법 범주'(서법, 양태, 부정, 시제, 상, 경어법) 및 기타 어미로 쓰이는 경우 등 상당히 혼란스럽다.

한정환(2011)에서는 '기능적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능'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쓰임'과 같이 문장성분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접속어(접속조사, 인용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쓰임)이나 운용어(서법, 양태, 부정, 시제, 상, 종결어미, 경어법으로 쓰임)와 같은 '기능'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기능'에서는 '접속어'와 같은 기능적 단어도 설정하였는데 접속어에 속하는 단어들인 '접속조사, 인용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는 공통적으로 접속의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인용어미'는 '인용', '전성어미'는 '전성'의 기능을 가진다.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어의 경우도 '어느, 무슨'과 같은 관형어는 '의문'의 기능도 가지는데 이러한 '의문'의 기능은 <표 1>에서 빠져있다. '기능'을 기준으로 제시하려면 이러한 '기능'을 문장성분의 문법 구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법 요소들의 포괄적인 문법 기능으로 보는지 아니면 둘 다 고려한 것인지 우선 명시해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문법 기능으로 보는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좀더 확대된 세분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용언은 '사동, 피동, 부정, 시제, 상' 등 다양한 문법 기능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단어로 범주화한 것이고 '어찌', '어디', '언제'는 '의문'이라는 단일한 문법 기능을 나타내지만 사전에서는 각각 부사, 대명사로 품사 통용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범주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능과 단어를 범주화하고 분류할 때는 명확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기존 단어에 대한 분류 중에서 한정환(2011)의 논의를 본고에서 비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한정환(2011)에서는 '기능'이 통사론의 기본 단위인 단어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 하였는데 일차적으로 기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러한 점은 분류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기능’에 대한 재고찰은 본고의 주요 논제 중의 하나로 3장에서는 품사의 기능과 문장성분의 문법 기능의 관련성에 대해 품사통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한정환(2011)에서는 성구소(XP, X0)도 기능적 단어로 주장하는데 이는 생성형태론학자인 Williams (1981), Di Sciullo/williams (1987)에서 X-bar syntax의 이론을 이용하여 단어 곧 통사범주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생성문법학자들의 문제점은 Katamba<sup>10)</sup>에서도 지적되었듯이<sup>11)</sup> 동사구(VP)가 통사범주나 문법관계 둘 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사범주는 개별 어휘범주도 포괄하는 것으로 품사에 대응될 수 있으며 문법관계는 문장성분에 대응된다. 한정환(2011)에서도 품사와 문장성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능적 단어’라는 모호한 개념을 설정하여 생성문법학자들이 범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한정환(2011)에서는 단어를 엄밀하게 정의하려 하지만 비교적 합의가 잘 된 또 다른 층위의 국어 문법 부류인 품사, 문장성분을 단어와 뒤섞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 단어들을 기본 재료로 해서 품사, 문장성분이 존재한다. ‘- 단어’는 이들 단어들을 각각의 기준으로 분류한 다른 아닌 ‘품사’, ‘문장성분’이다. 본고에서는 ‘단어’가 품사의 기본 재료로 ‘단어’들을 그 공통된 문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품사의 몫으로 ‘단어’는 정말 ‘단어’로만 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한정환(2011)의 논의는 ‘단어’를 통사부의 기본 단위라는 기능적

10) Katamba(2006), p. 367.

11) 덧붙여 Katamba (2006)에서는 이같은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몇몇 학자들은 동사구는 통사범주로 두고 동사구의 통사범주를 가진 구성성분이 문장 내에서 갖게 되는 문법관계를 기술할 때는 술어(predica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술어는 국어 문법의 문장성분, 서술어이다.



관점에서 접근하여 <표 1>과 같이 단어를 기존의 품사, 문장성분과 변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품사와 문장성분은 그 분류 기준은 물론 논란이 있지만 국어 문법에서 단어의 상위 범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가진 것이다. ‘단어’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적 분류인 ‘품사’나 문장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문법적 기능, 곧 통사적 관계를 지시하는 ‘문장성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어들이 어떤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 품사이며 어떤 단어가 그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문법적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 문장성분이다. 일반적인 단어의 정의인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에 부합하여 전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소위 내용어(content word)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에 비해 그렇지 않은 기능어(functional word)인 조사와 어미까지 모두 단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이다. 곧 어떤 단위가 품사 분류의 재료가 되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지만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 된다.

## 2.2. 단어 분류의 쟁점: 조사와 어미

단어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은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단어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 체계에서 소위 분석적 체계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한 것이며 학교 문법의 바탕을 이루는 절충적 체계에서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지만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국어학계의 논의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는 절충적 체계가 아니라 ‘어미’도 단어로 인정하는 분석적 체계가 지지되고 있다. 곧 ‘어미’에도 단어로서 품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구본관(2005, 2010), 남기심 외(2006), 박진호(2003, 2010), 이선웅(2012), 최웅환(2010), 최형용(2010, 2012) 참조).

‘조사, 어미’를 단어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문장 구조

분석까지 고려한 방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교착어로서 ‘어미’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논의에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처럼 ‘어미’도 ‘단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이에 대해 단어의 기본 정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형태소를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 단어를 ‘자립 가능한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할 때 ‘조사, 어미’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형태상으로는 의존적인 단위로 자립 가능한 단위라는 ‘단어’의 정의에 위배되며 둘째 기능상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조사, 어미’의 차이점은 특히 구법문법에서 ‘조사’는 선행하는 ‘어근’이 자립적이고 또한 의미적 독립성이 높다는 점에서 준자립어로 인정되어 단어로 보지만 ‘어미’는 선행하는 ‘어간’에 적절한 ‘어미’가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 중 ‘조사, 어미’의 차이점을 제시한 논의를 살펴보면 중세국어에 대상으로 한 안병희·이광호(1990)에서 체언과 용언의 표기 차이를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이 논의에서는 용언보다 체언에서 먼저 분절표기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체언은 조사가 결합하지 않더라도 독립된 의미를 갖는 반면 용언은 적절한 활용 어미가 그 어간에 결합되지 않는 경우 의미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조사, 어미’에 대한 차이점 논의, 곧 ‘조사’를 단어로 보고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는 ‘조사, 어미’와 관련하여 선행 요소인 체언, 용언의 자립성 및 의미적 독립성을 근거로 ‘조사, 어미’의 단어 여부를 결정하였다. ‘조사, 어미’가 가지는 고유한 ‘문법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앞서 제시한 단어의 정의인 ‘자립 가능한 최소의 문법 단위’에서 ‘자립 가능한’ 대신 ‘문법 단위’에 초점을 두어 ‘조사, 어미’는 모두 단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sup>12)</sup> 그렇다면 실제로 다음 예문으로 ‘어미’의 문법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1) 가. 말 한마디에 철수가 가다.

나. 말 한마디에 가는 철수다.<sup>13)</sup>

(1가)와 같이 동사 ‘가’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1나)와 같이 ‘가는’은 수식어로도 쓰일 수 있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가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해주는 전성(transformation)의 특정한 표식(marking)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장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가는’이 수식하는 것은 품사인지만 아니라 문장성분인지 살펴보자. 품사를 수식한다면 ‘가는’은 ‘철수’라는 명사 곧 품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보아야 하고 문장성분을 수식한다면 ‘가는’은 ‘철수(이)다’라는 서술어, 곧 문장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단어(어미), 품사, 문장성분’의 관계 속에서 ‘가는’은 ‘서술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수’라는 명사, 곧 품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인 동사를 수식어의 역할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곧 품사의 전형적인 기능을 다른 역할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같은 ‘어미’의 단어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어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좀더 살펴보면 허 웅<sup>14)</sup>에서는 ‘조사, 어미’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의

12) 명사의 하위 부류인 의존명사나 용언의 하위 부류인 보조용언의 경우도 자립 가능한 단위가 아니지만 문법적인 기능(양태, 시제 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단어로 보는 것이다.

13) ‘말 한마디에 가는 철수다. 말 한마디에 가는 훌륭한 철수다’의 경우 ‘가는’이 수식하는 것은 품사 ‘명사(철수)’뿐만 아니라 ‘명사구(훌륭한 철수)’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명사(철수), 명사구(훌륭한 철수)를 같은 핵, 명사(철수)를 가진 단위로 보아 ‘가는’이 수식하는 핵심 단위는 동일하게 보면 되지만 ‘훌륭한 철수(명사구)’는 품사도 문장성분도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어절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 분석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14) 허 웅(1975), p. 32.

제한성 여부, 둘째 다른 낱말로의 파생 여부, 셋째 문법적 기능 여부'이다. 물론 이는 굴곡론의 '씨끝(-은), 토씨(-애)'와 조어론의 '파생의 가지(-음)'의 차이점을 3가지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굴곡론의 '어미, 조사'의 문법적 의미를 동일하게 보아 조어론의 '접사'와 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어미, 조사'가 가지는 문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조사, 어미'를 단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곧 '어미'<sup>15)</sup>도 '조사'와 같이 모두 단어로 보는 소위 분석적 체계를 지지하며 '단어'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을 제안한다.

## (2) 단어

가. 어휘적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나. 기능적 단어(조사, 어미)

'단어'들이 이질적인 성격을 띠지만 모두 품사 분류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언어보편적으로도 언어유형론적으로도 중립적이며 친숙한 용어인 '어휘적, 기능적 단어'<sup>16)</sup>로 하위 분류해서 이들 '어휘

15) 물론 '접사'도 문법 단위 곧 문법 형태소임에 분명하지만 '어미, 조사'는 단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여 작용할 수 있으나 '접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지만 문장 전체와 관련되어 시간 부사어 결합 양상을 제약한다(\*영희는 내일 학교에 갔다). 반면에 '접사'는 주로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의 양상을 보이는 소위 한정적 접사이며 지배적 접사는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단어에만 한정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능적 단어로 '조사와 어미'를 제시한 것은 조사도 단어 이상의 다양한 단위와 결합하며 어미도 단어 이상의 단위에 작용한다는 점이 다른 문법 단위와는 차이가 있어 '조사와 어미'만 '단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어미'의 '단어'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앞서 열거한 기준 논의와 규범 문법 등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연관성과 변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본고에서는 지면상 간략하게 다루지만 추후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16) Quirk et al. (1985), Schachter (1985), Sasse (1993), Jackson (2000), Aronoff (2005),

적, 기능적 단어' 모두 온전히 품사 분류의 재료인 '단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어는 '자립 가능한 최소의 문법 단위'라는 Bloomfield (1933)의 영향이 강하고 대부분의 문법서에도 단어에 대해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와 구별하여 대개 Bloomfield (1933)의 정의를 제시하므로 이런 선입관을 없애는 데도 좋을 것이다. 곧 '조사, 어미'가 품사 분류를 위한 재료인 단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품사가 본래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진 이질적인 단어의 집합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소위 내용어(content word)는 물론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하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7)</sup>

동사와 형용사를 어휘적 단어, 어미를 기능적 단어로 정의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만 어휘적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태소 단계에서 의존적, 실질적 형태소로서의 '동사, 형용사 어간'에 대해 품사 분류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 곧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품사 분류의

---

Katamba (2006), 김진희(2013) 참조.

- 17) 김진희(2013)에서도 품사가 본래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진 이질적인 단어의 집합이라는 관점을 보여 주는 Sasse (1993), Schachter (1985)와 같은 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곧 굴절어에 기초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태'에 의한 기준은 사실 굴절어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굴절어에서도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일부 품사만 '형태' 변화 곧 굴절(어형 변화)이 나타나지 '전치사, 접속사'는 굴절어 품사 체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품사로 인정받고 있는 범주이다. 이처럼 '형태'에 의한 기준이 굴절어 내에서도 온전히 적용될 수 없다는 것에서 주목할 점은 품사 체계는 이질적인 집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진희(2013), pp. 91-92)에서는 단어가 이루는 품사는 이질적인 집합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소위 '내용어(content word)/개방범주'는 물론 '조사, 어미'와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폐쇄범주'가 있다는 것을 언어유형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다만 (2)와 같은 분류는 학교 문법이나 이론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단어들만 대상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사, 접속사'와 같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단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어휘적 내용도 있지만 문장에서의 '수식' 기능이 두드러진 '관형사, 부사'를 '어휘적 단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준인 ‘기능, 형태, 의미’ 중 ‘형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처럼 품사 분류 기준에서 ‘조사’나 ‘어미’ 결합 여부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로 나누는 ‘형태’의 기준은 구본관(2005), 최용환(2010)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어미가 결합하는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에 속하는데 이는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간과 다양한 어미가 결합된 결합형 ‘보니, 보고, 보다’에서 어간인 ‘보-’만 단어로 인정하므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를 기준으로 한 ‘가변어, 불변어’ 구분에서 ‘어미’를 단어로 인정한다면 ‘가변어’는 어간에 단어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어미 결합에 의한 변화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능, 형태, 의미’의 분류 기준에서 ‘가변어, 불변어’로 구분하는 ‘형태’의 기준은 다른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형용(2012)에서는 종래 ‘조사나 어미 결합 가능 여부’의 ‘형식’ 기준, 곧 ‘형태’는 ‘분포’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박진호(2010)에서는 분포적 기준으로 국어 품사 분류를 하였다. 다만 김건희<sup>18)</sup>에서는 ‘분포’가 순수하게 전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어미의 분포(위치)는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 어미에 관한 한 ‘분포’의 분류 기준으로서의 변별력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사, 어미’가 단어로써 품사의 기본 재료가 된다면 품사의 분류 기준 ‘형태’는 ‘분포’가 되어 다른 품사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사, 어미’에 선행하는 분포를 보이고 ‘조사, 어미’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고 항상 다른 품사와 결합하는 특수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익섭·채 완<sup>19)</sup>에서는 ‘조사, 어미’와 관련하여 ‘웃다’, ‘웃고’, ‘웃으니’, ‘웃으면’, ‘웃어라’, ‘웃었다’, ‘웃겠다’는 모두 한 단어(=어휘소)의 여러 다른 모습이며, 이때 이들 여러 모습들이 형태(word-form, or form)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명사 ‘철수가’, ‘철수를’, ‘철수에

18) 김건희(2013), p. 93.

19) 이익섭·채 완(1999), p. 59.

게'도 모두 한 어휘소 '철수'의 여러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익섭·채 완(1999)의 설명으로는 국어에서 '어미'는 물론 '조사'까지 단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특히 이익섭·채 완(1999)에서는 최소의 자립형식이 단어라는 단어 정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만 休止(pause)와 分離性(isolability)이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유용하게 쓰인다고 제시하였다. 고영근·구본관<sup>20)</sup>에서도 단어 정의의 어려움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이동(transposition)'이나 '휴지(pause)', '분리 가능성(isolability)' 등이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논의에 대해 한정환<sup>21)</sup>에서는 단어의 정의보다는 단어를 발견하는 복수의 절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만큼 단어의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외를 너무 많이 양산시켜 단어의 정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위 두 논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문장성분의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것도 이와 유사한 혼동을 보여주는데 단어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sup>22)</sup>

20) 고영근·구본관(2008), p. 33.

21) 한정환(2011), p. 214.

22) 특히 국외의 논의들도 단어 정의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어 구별 기준은 대부분 제시한다. 먼저 Jackson ((2000), p. 50-52.)에서는 단어의 고유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1> 분리될 수 없는 한 단위(an uninterruptible unit)

<2> 최소의 자립 형태(minimum free forms)

<3> 대개 구 구조에 나타남(the word occurs typically in the structure of phrases)

<4> 특정한 품사에 속함(belong to a specific word class or part of speech)

Aronoff ((2005), pp. 51-55.)에서도 어떤 것이 단어인지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정의를 생각해 내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테스트 곧 단어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구성소의 고정된 순서

<2> 비분리성과 통합성

### 3. 문장성분, 품사의 분류

#### 3.1. 문장성분의 정의와 분류 기준

기존 연구(사전, 논저, 문법서)에서 제시된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문장성분의 정의 1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 (4) 문장성분의 정의 2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를 표상한다.

[이홍식(2005), 송원용(2007) 외]

(3)은 문장성분이 문장을 구성한다는 문장성분들의 상위 범주를 명시한 것이다. 곧 문장이 계층적인 구성소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의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 ‘문장성분’은 그 명칭에서도 ‘문장의 구성 성분’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장성분은 (3)에 제시한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 그 자체를 말하거나 아니면 (4)에 제시하는 것처럼 이들 문법 단위의 문법적 기능을 말하기도 한다.

##### (5) 영희가 다니는 학교(이)다.

가. ? 주어 ‘영희가’ ~ 서술어 ‘학교(이)다’

나. ? 주어 ‘영희가’ ~ 관형어 ‘다니는’

다. 주어 ‘영희가’ ~ 동사 ‘다니’



그러나 특히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라는 정의에 의하면 (5가)처럼 주어 ‘영희가’는 서술어 ‘학교(이)다’의 주어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다)처럼 서술 기능을 하는 품사, 동사 ‘다니-’의 주어인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주어는 서술어의 주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문장 성분상 주어인 ‘영희가’는 ‘동사’의 주어이며 서술어 ‘학교(이)다’의 주어는 아닌 것이다. 이는 문장성분 ‘주어’는 문장성분 ‘서술어’의 ‘주어’가 아니라 ‘동사, 형용사’와 같은 품사의 ‘주어’임을 제시하여 문장성분과 품사의 관련성을 말해준다.<sup>23)</sup>

또한 (5)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복문이므로 생략된 부분인 ‘이곳이’라는 주어를 상정하여 주어, 서술어 관계를 좀더 명확히 대응시켜 보자.

- (6) 이곳이 영희가 다니는 학교(이)다.
  - 가. 주어 ‘이곳이’ ~ 서술어 ‘학교(이)다’
  - 나. ?주어 ‘영희가’ ~ 관형어 ‘다니는’
  - 나. 주어 ‘영희가’ ~ 서술어 ‘다니(다)’
  - 다. 주어 ‘영희가’ ~ 동사 ‘다니-’

(6가)처럼 ‘이곳이’라는 주어를 상정하면 서술어 ‘학교(이)다’의 올바른 주어를 설정했으므로 (5가)와는 달리 문법적으로 타당해진다. 그러나 이

---

23) 박진호(2003, p. 70.)에서도 다음과 같이 문장성분과 품사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국어문법에 품사와 문장성분이라는 두 개의 층위가 있고 이 둘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문장 내 어떤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기술할 때 이것을 단순히 품사와 품사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서도 안 되고 문장성분과 문장성분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서도 안 된다. 앞에 오는 어떤 문장성분과 뒤에 오는 어떤 품사 사이의 관계로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문장 내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앞에 오는 어떤 문장성분이 뒤에 오는 어떤 품사와 관련을 맺는다는 식으로 기술해야 한다.’

문장에서 ‘다나.’는 (6나)처럼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관형어, 서술형 어미가 결합하면 서술어라는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어인 ‘영희가’는 (6다)처럼 변하지 않는 핵인 ‘다나.’라는 품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장성분의 기본 정의는 (4)에 의하면 한 문장성분이 문장에서 다른 문장성분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문장성분들 사이의 관련성이 아니라 문장성분과 품사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문법적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곧 ‘수식’이라는 문법적 관계를 표상할 때 한 문장성분이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라기보다는 한 문장성분이 다른 품사와 맺는 문법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문법적 관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문법적 관계란 ‘문장성분이 문장(절) 안의 문법에서 하는 역할을 형태, 통사적으로 표시한 기능’으로 단순히 문장의 구성소라는 의미의 ‘문장성분’이라는 용어보다 실제 문장에서의 기능적인 역할이 부각된다. 국외의 논의에서도 ‘문법적 관계(grammatical relation)’ 혹은 ‘문법기능(grammatical function)’이나 ‘통사기능(syntactic function)’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Whaley (1997), Katamba (2006) 참조).

다음으로 기존에 제시된 문장성분의 분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7) 문장성분의 분류 및 기준

‘주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성분(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독립어)’과 같은 하위 부류로 나뉜다.

문장성분의 분류는 물론 ‘보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중요도’ 곧 필수성과 수의성을 주된 기준으로 위와 같이 분류하는 규범문법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장성분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해 허웅(1975)의 체계를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허웅(1975)에서는 월성분 처리에서 풀이말을 중심으로 일차 기능, 이차 기능, 삼차 기능

으로 갈라, 풀이말에 직접 관련을 갖는 일차 기능에서 임자말, 부림말, 어찌말, 위치말, 견춤말, 인용말로 나누고 이차 기능에서는 풀이말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매김말, 삼차 기능으로는 다른 말과 거의 관계가 없는 홀로말로 나누었다. 곧 허 웅(1975)에서는 ‘중요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현대 국어 규범문법 관점의 문장성분 분류(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와는 달리 풀이말을 중심으로 문장성분들을 하위 부류로 나누었는데 문장성분 분류를 새롭게 하자고 주장한 이정택(2002)의 논의나 매김말(관형어)과 홀로말(독립어) 개념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송원용(2007)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허 웅(1975)의 논의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이정택<sup>24)</sup>에서는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해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필수성 유무에 따라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들을 구분하는 ‘필수’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관계를 갖 대로 삼아 문장의 성분을 분류한다고 하였다. 즉 서술어 및 이와 일차적 관계로 연결되는 성분들을 ‘일차 성분’으로 분류하고, 서술어 외의 일차 성분에 딸리는 성분들을 ‘이차 성분’으로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채택하며 독립성분은 일, 이차 성분으로 짜여진 구성 전체와 관련되므로 ‘삼차 성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허 웅(1975)에서 논의된 문장성분의 분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송원용(2007)에서도 서술어 중심 규약을 기반으로 문장성분이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맺는 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위 관형어가 다른 성분과 맺는 관계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서술어와 맺는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관형어라는 문장성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그러나 국어 문법에서 공고한 위치에 있는 ‘관형어’의 중

24) 이정택(2002), pp. 387-388.

25) 이러한 ‘관형어’에 대해 허 웅(1999), p. 48)에서는 ‘기능’과 ‘자격’이라는 말로 분리하여 사용한다. 허웅(1999)의 ‘기능’은 서술어와 바로 맺는 관계를 말하고 ‘자격’은

요성을 생각할 때 서술어와 맺는 관계가 다른 성분과 다르기 때문에 관형어의 문장성분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서술어와 맺는 관계가 다른 성분과 다른 것을 층위적으로 보여주는 1차, 2차, 3차 기능으로 문장성분을 계층적으로 구분한 허 응(1975)의 논의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정택(2002), 송원용(2007)에서 제시한 문장성분 분류 기준의 문제점은 (4) 문장성분의 정의와 (7) 문장성분의 분류를 혼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곧 (4)의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문법적 관계’는 다른 문장성분 곧 풀이말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성분들이 맺는 관계로 실은 문장성분의 하위 분류를 나타내므로 (7) 문장성분의 분류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허 응(1975)을 토대로 기존 연구가 (4) 문장성분의 정의와 (7) 문장성분의 분류를 혼동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문장성분의 문장 내에서의 기능과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문장성분을 하위 분류하는 것을 혼동한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의 정의인 (4) ‘문장 내에서의 문법적 관계’는 다른 문장성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품사와의 관계로 특히 문장성분과 품사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여야 할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존의 문장성분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8) 문장성분의 정의

문장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인 동시에 다른 품사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가진다.

#### (9) 문장성분의 분류

문장성분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관계를 층위

---

문장 속에서의 위치를 말한다. 관형어의 경우 특히 명사를 통해서만 서술어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능’은 없고 관형어가 되는 ‘자격’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sup>26)</sup>는 것을 전제로 허웅(1975), 권재일(2012)의 논의를 토대로 1차, 2차, 3차 기능으로 문장성분을 계층적으로 구분한다.

(10) 문장성분의 분류의 실제

서술어

1차 기능의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2차 기능의 문장성분: 관형어

3차 기능의 문장성분: 독립어

이러한 분류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술어’는 분류 대상에 없으며 허웅(1975)에서는 기존의 부사어에 대해 서술어의 뜻을 꾸미는 것만 부사어로 한정하고 위치어, 비교어 등으로 그 쓰임에 따라 다양화 하였지만 본 분류에서는 부사어로 통일하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범 문법의 ‘보어’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면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동일하게 수식의 기능을 가지지만 서술어를 수식하여 1차 기능으로 본 부사어와는 달리 서술어와 관련이 없는 ‘관형어’는 2차 기능의 문장성분으로 보았다. 또한 문장부호상으로도 그 독립성을 표시하는 독립어는 3차 기능의 문장성분으로 보았다.<sup>27)</sup>

26) 용언(동사, 형용사)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데 특히 이러한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각 용언마다 상정할 수 있는 서술의 주체이다. 기존 문법서에서는 주어를 용언의 주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포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 전체의 주어라는 개념은 단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용언을 기준으로 한 주어의 의미역할(주체)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다.

27) 권재일(2012), p. 126.)에서는 문장성분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은 서술어로 문장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장성분들이 여기에 이끌려 이루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언어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권재일(2012), p. 127)에서는 문장성분을 서술어를 비롯하여 서술어에 직접적으로 이끌리는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에 간접적으로 이끌리는 성분으로 ‘관형어, 독립어’를 제

## 3.2. 품사의 분류 기준 ‘기능’과 문장성분: 품사통용

일반적인 품사의 세 가지 분류 기준 ‘기능, 형태, 의미’에서 ‘형태’는 국어의 교착성에 부합되지 않는 굴절어에 적합한 기준이고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므로 ‘기능’이 가장 중시된다(고영근·구본관(2008), 구본관(2010), 최웅환(2010), 최형용(2010, 2012) 참조). 이러한 품사의 분류 기준 ‘기능’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한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 및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눈 것’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관계 및 역할을 모두 문장성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영근·구본관(2008), 남기심·고영근(2006), 이익섭·채 완(1999) 참조).<sup>28)</sup> 허 웅<sup>29)</sup>에서도 굴곡을 하지 않는 말의 씨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통어론 상의 기능으로 보았다. 즉 품사의 세 가지 분류 기준 중에서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기능’(명사, 대명사, 수사)과 ‘한 기능’(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양적 측면에서 ‘여러 기능’, ‘한 기능’으로 ‘기능’을 고려한 것은 품사통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장성분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국어학에 품사통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남기심·고영근<sup>30)</sup>에 의하면 품사통용이란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sup>31)</sup> 허 웅(1975)에서는 품사 분류 기준 ‘기능’에

---

시하였다.

28) 따라서 ‘기능’에 따라 분류했다고 하는 체언은 주어, 용언은 서술, 수식언은 수식, 독립언은 독립, 관계언은 관계 표시의 관계 및 기능을 가져 체언은 주어, 용언은 서술어, 수식언은 수식어, 독립언은 독립어에 대응된다.

29) 허 웅(1975), pp. 50-51.

30) 남기심·고영근(2006), pp. 187-188.

31) 남수경(2011), pp. 106-108.)에서는 국어학에 품사통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남기심·고영근(2011)의 품사통용에 관한 정의는 홍기문(1927, 1947)처럼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

대해 특히 체언류가 ‘여러 기능’을 가지는 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품사통용의 예문을 살펴보자. 기존 논의에서 품사통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11) 체언의 경우(남기심·고영근(2006), 고영근·구본관(2008) 참조) 허웅(1975)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소위 ‘여러 기능’, 곧 가장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난다.

(11) 체언의 품사통용

가. 명관류

그는 이지적이다.<명사>/그는 이지적 인간이다.<관형사>

나. 명부류

그의 한 평생이 행복스러웠다.<명사>/그런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듣는다.<부사>

다. 명감류

천세나 만세를 누리소서!<명사>/만세! 대한독립 만세!<감탄사>

라. 명조류

들은 대로 다 적었다.<명사>/ 내 말대로 하여라.<조사>

마. 대부류

거기가 어디예요.<대명사>/나도 거기 갑니다.<부사>

바. 수관류

일곱에 아홉을 더하여라.<수사>/일곱 사람이 아홉 군대를 맞았다.<관형사>

이처럼 명사가 품사통용이 되었다고 하면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

다. 이러한 홍기문(1927), pp. 100-101.)의 논의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말이 이 품사 저 품사로 통용될 경계가 있다. 이런 때는 문장구조상 그의 임무를 보살피어 분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홍기문(1927) 논의에서도 문장구조상 그의 임무를 보살피어 분간한다고 하여 실제 문장에서의 쓰임, 곧 문장성분을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사'로 나타난다. 여기서 명사가 조사로 통용되었다고 보는 (11라)의 경우, 이러한 명사는 다른 명사들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명사가 아닌 문법 소성의 의존명사이고 이는 고영근·구본관<sup>32)</sup>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이다. 또한 감탄사로 쓰인 경우는 항상 심표, 느낌표의 '문장부호'라는 특정한 표식이 나타나므로 본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겠다.<sup>33)</sup>

명사가 '관형사, 부사'로 품사통용이 된 경우<sup>34)</sup> 이들의 문장성분은 '관형어, 부사어'이다. 이처럼 명사에서 품사통용이 된 경우는 '관형어, 부사어'의 문장성분이 되지만 정작 품사 '관형사, 부사'의 문장성분은 '관형어, 부사어'로 항상 단일한 문장성분으로 나타난다. 곧 '관형사, 부사'가 품사통용이 되는 소위 '관-류', '부-류'<sup>35)</sup>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이관

32) 고영근·구본관(2008), p. 51.

33) 이는 '품사들이 전형적인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형태적, 통사적 표식(marking)을 동반한다'는 Croft (1991, 2000)의 언어유형론적 접근 관점에서 논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아 어떻게든 특정한 표식이 나타나는 경우는 진정한 품사통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34) 이러한 체언의 품사통용 (11) 이외에도 남기심·고영근(2006), pp. 187-188.), 고영근·구본관(2008), pp. 49-50.)에서 제시한 품사통용은 모두 다음과 같다.

<용언의 품사통용>      형동류

마음이 크다.<형용사>/아이들이 크다.<동사>

<관계언의 품사통용>      조부류

네가 나보다 낫구나.<조사>/보다 나은 생활을 해 보자.<부사>

<수식언의 품사통용>      부감류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부사>/아니, 이럴 수가 있던 말인가?<감탄사>

용언의 품사통용은 동일한 문장성분, 서술어로 나타나며 관계언의 품사통용은 조사가 부사로 나타나지만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겠다. 수식언의 품사통용인 부사가 감탄사가 된 경우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장부호'라는 특정한 표식이 나타나므로 품사통용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결국 품사통용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체언의 품사통용이므로 체언의 품사통용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35) 다만 부사가 감탄사로 되는 경우는 역시 항상 심표, 느낌표의 '문장부호'라는 특정한 표식이 나타나므로 진정한 품사통용으로 볼 수 없다.



규<sup>36)</sup>에서 주장한 것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임에 비하여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것과 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명칭이라는 설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관형사, 부사는 항상 문장에서의 쓰임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곧 ‘기능’이 우선시되는 품사이므로 실제로 문장성분상에서도 단일한 문장성분 ‘관형어, 부사어’로만 나타난다. 반면에 ‘명사, 대명사, 수사’의 체언류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휘적 내용도 있지만 ‘기능’이 중심이 되는 품사인 ‘관형사, 부사’는 실제 문장에서의 쓰임인 ‘문장성분’도 항상 단일하게 나타나는 소위 ‘한 기능’ 품사로 품사통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이는 품사의 ‘기능’과 ‘문장성분’ 정의의 핵심인 ‘문법적 관계’ 곧 ‘문법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며 품사통용이 문장성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이 품사통용은 문장에서의 실제 쓰임 및 분포로 판단되는 문제로 예를 들어 명사, 부사의 대표적인 품사통용으로 앞서 제시된 ‘평생’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는 추상형인 단어, 곧 어휘목록으로서 ‘평생’은 특별히 ‘명사’, ‘부사’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12)와 같이 문장에서 실제로 쓰여 다른 분포를 나타낼 때 그 품사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 (12) 가. 그의 한 평생이 행복스러웠다. <명사>  
나. 그런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듣는다. <부사>

‘명사’는 규범문법에서 (13) ‘형태, 기능, 의미’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명사’라는 품사로 규정된다.

36) 이관규(2005), p. 124.

‘평생’을 ‘명사’로 볼 경우 이러한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모두 부합되지만 ‘부사’로 볼 경우 (13)의 기준에서 ‘기능’만 부합되지 않는다.

(13) 명사

- 가. 형태: 불변어 및 조사 결합
- 나. 기능: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임
- 다. 의미: 일반적으로 이름을 나타냄<sup>37)</sup>

따라서 이러한 ‘기능’의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에서 벗어난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히 ‘평생’은 (14)와 같이 ‘부사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 한 측면으로 다른 품사로 통용된다고 보는 등 품사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품사통용의 관점에서는 ‘평생’에 대해 (14다)와 같은 기존의 ‘명부류’뿐만 아니라 (14마)와 같은 ‘명관류’로도 규정하여 사전에서 ‘평생’을 ‘명사, 부사, 관형사’로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14) ‘평생’의 다양한 실제 쓰임

- 가. 주어: 그 사람, 평생이 그 모양이다.
- 나. 목적어: 문맹 퇴치에 평생을 바치다.

---

37) ‘평생’을 부사로 볼 경우 분류 기준 중에 기능만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일반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추상 명사를 비롯한 많은 명사들이 ‘일반적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 이런 문제를 갖는다. 국어 품사 분류의 ‘의미’ 기준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사’에서 ‘부사’로 되었다고 볼 경우에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는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를 세분화하여 ‘성질, 가치, 색깔…’ 등의 ‘의미 유형’(semantic type)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다. 부사어: 정말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다. <명부류>  
 라. 서술어: 이렇게 한 우물을 판 지가 내 평생이다.  
 마. 관형어: 영감님은 평생 동안 호탕하게 사셨다. <명관류>

이와 같이 본 논의에서는 단순히 품사 분류 기준 ‘기능’과 문장성분의 ‘문법 기능’이 중복되므로 품사통용 문제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허웅<sup>38)</sup>에서처럼 특정한 품사류는 소위 여러 기능의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의 경우로 살펴본 것처럼 ‘평생’이 다른 품사로 통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기능’ 곧 ‘문장성분’이 ‘관형어, 부사어’ 등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이 달라지면 다른 품사로 되었다고 보는 품사통용의 관점은 품사의 분류 기준(기능, 형태, 의미)에서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품사 중에는 여러 문장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품사도 있고 그렇지 않는 품사도 있으므로 품사통용은 그 출발점이 ‘여러 기능’ 곧 여러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 품사류에 국한된 지역적인 고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사의 다른 분류 기준들(형태, 의미)에서 전형적인 그 품사로서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품사통용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품사로 보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만 사전에서의 등재 방식은 기본이 되는 품사를 표제어로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다른 용례들의 다양한 쓰임을 보여주는 다의어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 3.3. 내포절 용어에 관한 문제: 문장성분과 품사의 혼용

앞에서 품사의 분류 기준 ‘기능’과 문장성분의 핵심 ‘정의’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장성분과 관련된 단위를

38) 허웅(1975), pp. 50-51.

품사의 용어로 분류한 혼재된 명명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품사(part of speech)의 원래 의미는 ‘문장의 부분(parts of sentence)’을 말한다. ‘문장의 부분’이라고 할 때 ‘부분’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문장의 구성 성분(sentence constituents)’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사의 원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현대 국어의 문법적 개념은 ‘문장성분’이다.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바로 문장성분의 기본 단위는 어절이지만 이러한 어절들이 결합된 구, 절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현대 국어의 일반적인 합의점을 시사한다. 곧 문장성분의 기본 단위는 어절이지만 이러한 어절들이 결합된 구, 절로 확대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지만 내포절과 문장의 차이는 바로 내포절은 문장성분으로 문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문장의 구성 성분, 곧 문장의 구성소이며 문장은 그야말로 문장이라는 것이다. 허 웅<sup>39)</sup>에서도 절을 여러 가지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과 오직 한 가지 기능만을 갖는 것의 두 부류로 크게 분류하였고 이익섭·채 완<sup>40)</sup>에서도 관형사절, 부사절과 같은 내포절은 절이 부사어, 관형어와 같은 한 문장의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내포절은 일반적으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5가지로 보는데 <표 2> (i)과 같이 이러한 내포절의 용어에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은 품사의 용어며 서술절은 문장성분의 용어이며 인용절은 또 다른 층위의 용어이다. 내포절은 문장성분으로서 문장의 한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므로 문장성분의 용어로 명명되어야 하지만 품사의 용어가 혼재되었다.<sup>41)</sup> 이에 대해 문장성분의 핵심이 문법

39) 허 웅(1999), pp. 533-534.

40) 이익섭·채 완(1999), p. 381.

41) 이처럼 품사, 문장성분이 혼재된 절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홍식(2003), 유현경(2011)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이홍식(2003), p. 66.)에서는 명사절이나 관형절은 품사 명칭이지만 서술절은 성분 명칭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현경((2011), p. 396.)에서는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는데, 품사의 이름을 토대로 명사절,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물론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고 ‘절’ 성분은 품사 분류의 대상은 아니지만 품사의 ‘기능’에 의한 중분류인 ‘체언, 수식언, 용언’의 용어로 <표 2> (ii)와 같이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포절의 핵심 기능은 문장성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ii)에 의거하여 ‘수식언절’로 통일하면 서로 다른 부사어절, 관형사어절의 전성 어미를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 2> (iii)과 같이 본래의 문장 성분 용어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형어절은 ‘기능’ 중심의 문장성분으로 명명되고 명사절은 조사 결합이라는 ‘형태’ 중심의 품사로 명명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관형어절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기능’을 기준으로 문장성분 용어로 통일해도 이는 ‘형태(조사 결합)’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일관성 문제도 해결된다. 또한 ‘조사 결합’은 당연히 명사 하나만 되지 않고 수사, 대명사 등 체언류의 대표적인 특징이므로 명사절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기능’ 곧 문장성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서 한국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은 기존의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다양하게 기능하지만 동일한 전성 어미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사절은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로 하지 않고 체언(품사 분류 중 ‘기능’에 의한 분류)절로 통일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분류에 관한 용어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문법 내용 자체에 대한 기술이 더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체계를 고려한 분류 용어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야 내포절이라는 문법 단위의 기본적인 개

---

관형사절, 부사절이라 하고 인용절은 부사절의 하위 유형인 인용 부사절, 서술절은 동사절이나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부분의 각주에서는 문장성분의 이름을 토대로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은 그대로 두고 명사절을 체언절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체언절’은 문장성분의 이름이 아니라 품사의 상위 범주에서 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념과 세부적인 기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내포절의 문장성분과 품사가 혼재된 표기 방식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문장성분과 품사의 연관성 및 변별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2〉 내포절의 분류 용어

(i) 기존 내포절 분류			(ii) 품사 중분류 용어로 분류	(iii) 문장성분 용어로 분류(본고의 제안)	
품사	문장성분	수사법			
명사절			체언절	주어절	→ 체언절
				목적어절	
				보어절	
부사절			수식언절	부사어절	
관형사절				관형사어절	
	서술절 <sup>42)</sup>		용언절	서술어절	
		인용절 <sup>43)</sup>	인용절	인용절	

42) 계속 논란이 있는 인용절, 앞서 언급한 체언절 등을 제외하고 문장성분의 용어로 명명할 때 더 살펴보아야 할 절은 ‘서술절’이다. 서술절의 경우 순전히 기능 중심의 문장성분 용어로 명명되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는 달리 전성어미나 격조사가 결합되지 않은 유일한 절로써 서술어 자리에 쓰여 서술어로 기능할 때만 서술절이지 전성어미가 결합되면 다른 절로 되어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서술절에 필수 요소인 ‘용언(형용사, 동사)’은 기본적으로 전성어미와 결합하여 다른 자격(관형어, 명사 상당어)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를 수식어로 바꾸는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단어로 보아야 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절은 문장성분의 용어로 제시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에는 맞지만 서술어로 쓰였을 때만 그 분류 용어와 문법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품사, 문장성분을 토대로 한 용어가 아닌 인용절은 명사절, 부사절로 보는 등 그 범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고영근·구본관(2008), p. 509). 인용절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補語’인 경우는 본고의 체언절(기존 명사절)로, 부사어와 같은 경우는 부사어절로 볼 수 있어 ‘인용절’을 해체할 수도 있지만 ‘-고’라는 내포절 형성 문법소인 인용격조사(혹은 인용어미)를 존중하여 일단 그대로 제시하겠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어, 품사, 문장성분’이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이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혼용되거나 그 정의와 분류 기준이 혼동되고 있는 국어 문법 내용의 면모를 들춰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는 ‘단어, 품사, 문장성분’이 국어 문법에서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모두 중요한 기본 단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곧 단어, 품사, 문장성분이 연관성이 있지만 각 단위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고 이를 토대로 변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때 각각의 정의 및 특성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장성분’은 전통 문법에서는 중요한 주제였지만 근래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장성분이란 문법 단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문법서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주요 문장성분에 대한 설명도 빠지지 않고 제시되며 학교문법에서도 최근에 ‘품사’와 ‘문장성분’을 연계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품사’는 그 보편성 및 실용성이 인정되어 언어 교육, 사전 편찬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단어, 품사, 문장성분’에 대해 어떤 일관된 기제로 다루기에는 원론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론문법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문장성분’, ‘품사’에 대해 특히 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44)</sup>

44) 혹자는 학교문법과 이론문법의 연구 수준 차이가 가장 안 나는 분야가 ‘문장성분’과 ‘품사’라고까지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국어학의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특히 나아가지 못한 대표적인 주제인 ‘문장성분’과 ‘품사’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에 대하여 기존 논의들이 ‘품사, 문장성분’의 용어를 사용하여 ‘- 단어’로 분류하는 것을 비판하고 ‘단어’는 어떤 단위가 품사 분류의 재료가 되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가로 논의를 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단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던 ‘어미’를 중심으로 최근의 몇몇 논의처럼 ‘어미’도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 문장성분에 대하여 기존 논의들이 문장성분의 정의와 문장성분의 분류를 혼동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문장성분의 일반적인 정의인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품사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정의는 다른 문장성분, 곧 서술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장성분들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품사의 분류 기준 ‘기능’은 문장성분의 ‘문법 기능’과 중복되는 것이며 이는 품사통용의 문제와 연관됨을 보였다. 곧 품사통용은 기본적으로 허용(1975)에서 규정한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체언류에 국한되어 특정한 품사류는 여러 기능의 문장성분으로 나타난다는 정도로 그 논의를 축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품사 분류 기준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에 대한 재고찰을 하는 것이며 품사통용이 품사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성분의 문제임을 보이고자 함이다.

본 논문은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큰 틀에서만 접근하여 실제로 ‘단어’, ‘품사’, ‘문장성분’ 각각에 대하여 그 개별적인 특성을 자세히 밝히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문장성분’, ‘품사’는 그 자체로도 다각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먼저 ‘문장성분’에 대한 연구는 개별 문장성분의 단위 및 특성, 문장성분과 격과의 관계, ‘주어’와 같은 주요 문장성분을



이루는 주격조사의 범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품사에 대한 연구도 품사의 분류 기준, 품사의 통용 및 전성, 각 품사의 개별적인 특성 등 다각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이러한 큰 틀의 논의를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기제로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그 개별적인 특성을 밝힐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전통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야를 넓혀 단어 부류, 통사 기능의 본질 등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편집위원회.
- \_\_\_\_\_ (2005), 「남북의 품사 분류와 한국어 교육」,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건희(2014), 「허웅 선생의 «우리 옛말본(1975)» 다시 읽기」,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박이정.
- \_\_\_\_\_ (2013), 「품사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 — 언어유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글』 300, 한글학회.
- 남기심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기심·고영근(2006),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남수경(2011), 「품사통용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 박진호(2010), 『분포에 의한 단어 분류와 기능에 의한 단어 분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소/한국 언어 유형론 연구회 공동 워크숍 발표 자료.
- \_\_\_\_\_ (2003), 「통사론」,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 송경안(2008), 「품사의 유형론」, 『언어유형론』 I, 월인.
- 송원용(2007), 「국어 문장성분 분석의 원리와 절차」, 『개신어문연구』 25, 개신어문학회.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국어학회.
- 이관규(2005),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익섭·채 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택(2002), 「문장성분 분류 시론 — 그 체계 정립을 위하여 —」,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 이향천(2008), 「무엇을 명사라고 하는가?」, 『언어학』 50, 사단법인한국언어학회.

- 이흥식(2005), 『한국어의 문장성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한국방송대학교 평생교육원 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_\_\_\_\_(2003), 『문장의 주요 성분』, 『새국어생활』 13-4, 국립국어연구원.
- 최용환(2010), 『국어 품사론 연구의 전개와 전망』,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 문화사.
- 최형용(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분류 기준으로서의 ‘형식’을 중심으로-』, 『형태론』 14-2, 형태론편집위원회.
- \_\_\_\_\_(2010), 『품사의 경계-조사, 어미, 어근, 접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47, 국어학회.
- 한정환(2011),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 허용(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서울: 샘 문화사.
- \_\_\_\_\_(1975), 『우리 옛말본-15세기국어형태론-』, 샘문화사.
- 홍기문(1927), 『조선문전요령』, 『역대한국문법대계』 1부 15책, 탑출판사.
- Aronoff, M & K. Fudeman (2005), *What is Morph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김경란 옮김(2005), 『형태론』, 한국문화사)
- Baker, C. Mark (2003), *Lexical Categories: Verbs, Nouns and Adj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sang, W. (2011), *Word Classes*. In Jae Jong So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loomfield, L. (1933), *Language*, George Allen and Unwin.
- Croft, W. A. (2000), “Parts of speech as typological universals and as language particular categories”, In Vogel P. M. & Comrie, B. (eds.),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 \_\_\_\_\_(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Di Sciullo A. M. & E. Williams (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The MIT Press.
- Jackendoff, R. (1977), *X-bar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H. & E. Z. Amvela. (2000), *Words, Meaning and Vocabulary: An Introduction to Modern English Lexicology*, Continuum.
- Katamba, F & J. Stonham. (2006), *Morphology* (2nd), Palgrave Macmillan (김진희 · 김경란 옮김(2008), 『형태론』, 한국문화사)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 Sasse, H. J. (1993), “Syntacti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n J. Jacobs, A. et al. (eds.), *Syntax*. Berlin: Mouton de Gruyter.
- Schachter, P. (1985), “Parts of speech systems” In T. Shopen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lause Structure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aley, L. J.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김기혁 옮김(2008), 『언어 유형론』, 소통)
- Williams, E. (1981),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Linguistic Review* 1.

원고 접수일: 2013년 12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4일

ABSTRACT

---

## The Classification of the Word,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Constituents

- Focusing on Co-relation and Distinctiveness -

Kim, Keon-hee\*

The main assert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word,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constituents are distinctively made on the basis of the co-relation of the word,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constituents. In previous studies, there have been three problems: (1) the inappropriate arrangement of the domain of topic concerned with these grammatical units, (2) the mixing of the terminology, and (3) confusion surround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In this study, the word is considered only as the pure ‘word’ and not ‘- word’ which corresponds to ‘parts of speech’ or ‘sentence constituents’. The general definition of sentence constituents as ‘expressing the grammatical relation with other sentence constituents’ is revised as ‘expressing the grammatical relation with other part of speech’; the former definition corresponds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hich must be on the basis of sentence constituents, the predicates. The ‘function’, which acts a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parts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won University

of speech, overlaps with the grammatical function of sentence constituents. This is connected with the '*pumsatongyong*', so '*pumsatongyong*' from the viewpoint of parts of speech is reduced to 'the specific part of speech occurs as the various kinds of function of sentence constituents in the actual sentence'.